

## 서울시 교육감선거 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 유감 인권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 의견 전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008년 7월 30일 실시되는 서울특별시 교육감 선거의 투표소 중 상당수가 종교시설 내에 설치된 것에 유감과 우려를 표명하며, 향후 이를 개선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을 2008. 7. 2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2008년 3월 공직선거법 제147조에 따라 투표소를 설치할 때 투표구 내에 투표소를 설치하기에 적당한 장소가 없는 등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교시설 내에 투표소를 설치하지 말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권고한 바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시 이미 이에 대한 민원이 제기돼 자체적으로 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중이라면서 다만 현재 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2008헌마207)이 제기돼 진행중이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 여부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통보해 왔습니다.

그러나 2008. 7. 30. 실시 예정인 서울특별시 교육감 선거의 종교시설 내 투표소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투표소 2,189개소 중 종교시설 내 투표소는 397개소(18.1%)로 지난 17대 대통령선거(2007년 12월)와 18대 국회의원 총선거(2008년 4월) 때와 비교할 때 여전히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국가인권위는 유감과 우려를 표명한 것입니다.

선거구별로 살펴보면, 은평구는 전체투표소 90개소 중 33개소(36.7%), 용산구는 전

체투표소 59개소 중 21개소(35.6%), 서대문구는 전체투표소 82개소 중 28개소(34.1%), 동대문구는 전체투표소 89개소 중 30개소(33.7%)로 높게 지정된 반면, 노원구, 관악구, 중구, 강남구 등은 그 숫자가 미미하게 나타나 선거구별로 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에 큰 편차를 보였습니다. 특히 동작구와 관악구가 각각 11개소와 18개소를 줄인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대다수 선거구는 오히려 종교시설 내 투표소가 늘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선거구별로 투표소 설치가 가능한 비종교시설을 구할 수 있는 여건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서울특별시 등 대도시에서 종교시설 내 투표소 비중이 오히려 더 높은 것은 선거구별 선거관리위원회의 개선의지 여부에 따라 빚어진 결과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를 피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헌법 제20조 제1항과 유엔자유권규약 제18조 제2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 속에 '국민이 종교상의 이유로 출입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특정 종교시설에 출입을 강제당하지 아니할 자유'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종교시설에 투표소를 설치하게 되면 투표소로 지정된 종교시설에 종교상의 이유로 출입하기를 원하지 않는 유권자는 투표를 위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출입하든지 아니면 투표 행위를 포기하든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는 일부 선거구를 제외하고 오히려 종교시설 내 투표소가 증가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유감과 우려를 표명하고, 관계기관이 향후 공직선거시 각별히 유의하고 개선을 촉구하도록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별첨 : 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에 대한 의견

## 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에 대한 의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08년 7월 30일 실시되는 서울 특별시 교육감선거의 투표소 중 상당수가 종교시설 내에 설치된 것에 유감과 우려를 표명하며, 향후 이를 개선할 것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촉구한다.

1. 위원회는 지난 2008년 3월 공직선거법 제147조에 따라 투표소를 설치할 때 투표구 내에 투표소를 설치하기에 적당한 장소가 없는 등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교시설 내에 투표소를 설치하지 않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권고한 바 있다.
2.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당시 이미 이에 대한 민원이 제기돼 자체적으로 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중이라면서 다만 현재 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2008헌마207)이 제기되어 진행중이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 여부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통보하여 왔다.
3. 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 최소화 방안”에 대하여 헌법 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의미있는 조치로 평가하였다.

4. 그러나 2008. 7. 30. 실시 예정인 서울특별시 교육감 선거의 종교시설 내 투표소의 현황을 살펴보면 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 문제가 크게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전체투표소 2,189개소 중 종교시설 내 투표소는 397개소(18.1%)로 지난 17대 대통령선거(2007년 12월)와 18대 국회의원 총선거(2008년 4월) 때와 비교할 때 크게 줄어들지 않고 여전히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실시된 17대 대통령선거(2007년 12월)에서 전체투표소 2,210개소 중 종교시설 내 투표소는 511개소(23.1%)였고, 18대 국회의원 총선거(2008년 4월) 때는 전체투표소 2,211개소 중 426개소(19.2%)였으며, 오는 7월 30일 실시예정인 교육감선거에서는 전체투표소 2,189개소 중 397개소(18.1%)가 종교시설 내에 설치돼 있다. 그러나 이 중 동작구와 관악구에서 29개소가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선거구별로 살펴보면, 은평구는 전체투표소 90개소 중 33개소(36.7%), 용산구는 전체투표소 59개소 중 21개소(35.6%), 서대문구는 전체투표소 82개소 중 28개소(34.1%), 동대문구는 전체투표소 89개소 중 30개소(33.7%)로 높게 지정된 반면에 노원구, 관악구, 중구, 강남구 등은 그 숫자가 미미하게 나타나 선거구별로 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에 큰 편차를 보였다. 이는 선거구별로 투표소 설치가 가능한 비종교시설을 구할 수 있는 여건에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선거구별 선거관리위원회의 개선의지 여부에 따라 빚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서울시는 공직 선거 시마다 종교시설 내 투표소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는바, 이는 공공시설이 많은 대도시에서 비종교시설 내 투표소를 확보하는 것이 더 용이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납득하기 힘든 현상으로,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촉구할 수밖에 없게 한다.

5. 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를 피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헌법 제20조 제1항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제2항에서 보장하고 있

는 종교의 자유에 따른 것이다. 종교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 종교적 행위의 자유 및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 종교 전파·교육의 자유 등을 아우르고 있다. 종교적 행위의 자유에는 국민이 종교상의 이유로 출입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특정 종교시설에 출입을 강제당하지 아니할 자유도 포함된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 종교시설 내에 투표소를 설치하고 이를 공고하게 되면, 유권자들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해당 투표소에서만 투표를 할 수 있다. 이는 투표소로 지정된 종교시설에 종교상의 이유로 출입하기를 원하지 아니한 유권자로 하여금 투표 참여와 종교의 자유 간에 선택을 강제하는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투표구 내에 종교시설 이외에는 투표소를 설치할 적당한 장소가 없다는 등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종교시설을 투표소로 지정함으로써 유권자의 일부라도 종교상의 이유로 민주주의의 실현에 가장 기본이 되는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6. 위원회는 위와 같은 이유로 일부 선거구를 제외하고는 오히려 종교시설 내 투표소가 증가하고 있는 현상에 대하여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으며, 향후 공직선거 시 이를 각별히 유의하고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2008. 7. 28.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

별첨 1. 2008년 교육감선거 종교시설내 투표소 설치 현황

구 분 구 별	전체투 표소수	종교시설 투표소 수					비 고
		합 계	개신교	천주교	불교	기타	
합 계	2,189 (100%)	397 (18.1%)	360 (16.4%)	27 (1.2%)	4 (0.2%)	6 (0.3%)	
		종교별비율	(90.7%)	(6.8%)	(1.0%)	(1.5%)	
종로구	54	12 (22.2%)	11			1	유림회관
중구	45	2 (4.4%)	2				
용산구	59	21 (35.6%)	20			1	천리교
성동구	71	16 (22.5%)	13	2	1		
광진구	83	21 (25.3%)	16	3		2	대순전리회
동대문구	89	30 (33.7%)	28	1		1	대순전리회
중랑구	84	11 (13.1%)	10	1			
성북구	96	23 (24.0%)	22		1		
강북구	78	10 (12.8%)	9	1			
도봉구	79	10 (12.7%)	10				
노원구	119	1 (0.8%)		1			
은평구	90	33 (36.7%)	31	2			
서대문구	82	28 (34.1%)	25	3			
마포구	94	23 (24.5%)	21	1	1		
양천구	104	20 (19.2%)	18	2			
강서구	119	21 (17.6%)	20	1			
구로구	90	10 (11.1%)	10				
금천구	58	9 (15.5%)	8	1			
영등포구	97	21 (21.6%)	20	1			
동작구	85	14 (16.5%)	13	1			
관악구	93	2 (2.2%)	1	1			
서초구	93	15 (16.1%)	15				
강남구	116	8 (6.9%)	5	3			
송파구	122	17 (13.9%)	15	1	1		
강동구	89	19 (21.3%)	17	1		1	대순전리회

※ 위 표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8년도 교육감선거정보시스템(<http://www.nec.go.kr:7070/edextern/index.html>)”을 참고하여 현황을 파악한 내용임

## 별첨 2. 종교시설내 투표소 설치 비교 현황

구 분 구 별	17대 대통령선거		18대 총선거		교육감선거(2008.7.30)	
	2,210 (100%)	511 (23.1%)	2,211 (100%)	426 (19.2%)	2,189 (100%)	397 (18.1%)
합 계	2,210 (100%)	511 (23.1%)	2,211 (100%)	426 (19.2%)	2,189 (100%)	397 (18.1%)
종로구	54	13 (24.1%)	54	12 (22.2%)	54	12 (22.2%)
중구	45	4 (8.9%)	45	3 (6.7%)	45	2 (4.4%)
용산구	59	21 (35.6%)	59	21 (35.6%)	59	21 (35.6%)
성동구	71	15 (21.1%)	71	14 (19.7%)	71	16 (22.5%)
광진구	85	22 (25.9%)	84	24 (28.6%)	83	21 (25.3%)
동대문구	90	28 (31.1%)	89	28 (31.5%)	89	30 (33.7%)
중랑구	85	20 (23.5%)	84	10 (11.9%)	84	11 (13.1%)
성북구	99	26 (26.3%)	98	22 (22.4%)	96	23 (24.0%)
강북구	79	21 (26.6%)	79	11 (13.9%)	78	10 (12.8%)
도봉구	79	12 (15.2%)	79	11 (13.9%)	79	10 (12.7%)
노원구	119	8 (6.7%)	119	1 (0.8%)	119	1 (0.8%)
은평구	91	33 (36.3%)	91	32 (35.1%)	90	33 (36.7%)
서대문구	84	33 (39.3%)	84	26 (30.9%)	82	28 (34.1%)
마포구	96	30 (31.3%)	95	19 (20.5%)	94	23 (24.5%)
양천구	104	20 (19.2%)	104	17 (16.3%)	104	20 (19.2%)
강서구	116	27 (23.3%)	119	25 (21.0%)	119	21 (17.6%)
구로구	89	14 (15.7%)	90	9 (10.0%)	90	10 (11.1%)
금천구	59	16 (27.1%)	58	12 (20.7%)	58	9 (15.5%)
영등포구	95	26 (27.4%)	97	18 (18.6%)	97	21 (21.6%)
동작구	87	26 (29.9%)	<b>85</b>	<b>25 (29.4%)</b>	<b>85</b>	<b>14 (16.5%)</b>
관악구	107	25 (23.4%)	<b>107</b>	<b>20 (18.7%)</b>	<b>93</b>	<b>2 (2.2%)</b>
서초구	92	18 (19.6%)	93	16 (17.2%)	93	15 (16.1%)
강남구	116	12 (10.3%)	116	10 (8.6%)	116	8 (6.9%)
송파구	120	21 (17.5%)	122	17 (13.9%)	122	17 (13.9%)
강동구	89	20 (22.5%)	89	23 (25.8%)	89	19 (21.3%)

### 별첨 3. 2008년 서울특별시 교육감 선거 투표소 설치 장소 현황

구 분 전 체	학 교	동사무소등 공공시설	공공기관 및 단체	주민회관	교 회 (개신교)	기 타
2,189	826	349	145	43	364	462
(100%)	(37.7%)	(15.9%)	(6.6%)	(2.0%)	(16.6%)	(21.1%)

\*기타 : 성당, 절, SGI, 경로당, 민간시설 등

※ 위 표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한 현황

### 참고

※ 우리 위원회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8년도 교육감선거정보시스템(<http://www.nec.go.kr:7070/edextern/index.html>)”을 참고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통계수치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과에 문의하여 확인했음

※ 우리 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교회(개신교)에 설치된 투표소는 360개소이고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된 투표소는 364개소로 다소 오차가 있을 수 있음